

‘전통시장에서 우리 가치삼시다’

전북중기청, 도내 6개 지역서 대규모 캠페인 전개 소상공인·지역업체 위한 지원사업 홍보도 병행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10일,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민간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도내 6개 지역에서 민·관 합동 대규모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우리 가치삼시다’라는 중소벤처기업부 명절 슬로건을 토대로 전통시장 이용 붐 조성을 위해 전주, 익산, 고산, 김제, 정읍, 남원에서 동시에 개최했으며, 6개 지자체와 시장상인회를 비롯하여 조달청, 전주세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28개 전북중소기업지원협의회 회원기관을 포함한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전북중기청은 민관 협업으로 추진

하는 이번 행사의 내실 있는 홍보를 위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거점으로 전주지역은 한옥마을과 남부시장에서, 그 외 지역은 대형마트 인근과 지역 전통시장으로 정했다.

이날 행사는 시민들에게 온누리상품권 홍보를 포함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리플릿과 장바구니를 배부하여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했으며, 이후 지역 대표 전통시장으로 이동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형태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외에도 소상공인·지역업체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낮춘 ‘제로페이(zero pay)’와 최근 새롭게 선보인 온누리 모바일상품권, 전통시장 가을 축제에 대한 홍보도 포함되었다.



전북중기청이 10일, 추석 명절을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도내 6개 지역에서 민·관 합동 대규모 캠페인을 실시했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김광재 청장은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 붐 조성에 목적이 있으며, 상생과 공존의 시대에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동반상생을 위해 작은 것부터 연결을 시도하지는 취지

로 마련했다”면서 “나아가 오늘의 활동들이 지역 전통시장에 활력을 제공하는 강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 기관들과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무인항공방제용 농약 개발 ‘활기’

농진청, 농약등록시험 기준 개선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농작물 병해충 방제에 무인항공기(드론)의 이용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무인항공방제용 농약등록시험 기준을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비에 발생하는 병해충은 주로 무인항공 방제를 해왔다. 최근에는 보다 저렴하고 조종이 간단한 드론이 주목받으면서 무인항공기 외에 무인항공방제용 농약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런데 무인항공방제용 농약등록시험 기준은 무인항공기 대상으로, 규격과 성능이 다양한 드론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드론을 이용한 농약 등록에 필요한 시험 기준과 방법을 개발했다.

등록 기준은 농약 살포 높이, 폭, 속도, 저비산 노즐 채용 등이며, 특히 드론 수유가 많은 발작물에 사용하기 쉽도록 했다. 이 시험 기준과 방법은 무인항공기보다 작은 드론의 특성을 감안해 비행고도를 2~3m, 비행속도를 8~11km/h로 설정했다. 논보다 협소한 밭에서 쓰기 쉽도록 시험구 면적을 무인항공기의 525㎡보다 적은 192㎡로 설정했다. 이 시험 기준은 202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홍수명 농자재평가과장은 “정부혁신의 하나로 개정된 기준을 활용하면 무인항공방제용 농약 개발이 활기를 띠 것”이라며, “드론을 활용한 무인항공방제로 발작물 재배 농가의 노동력 또한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경진원, 소상공인아카데미 교육사업 참가자 모집

전북도경제특성상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최하는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 ‘찾아오는교육’과 ‘찾아가는교육’ 사업에 참여할 (예비)소상공인 및 (예비)협동조합을 비롯한 도민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찾아가는교육’은 시설립한 협동조합만 가능하다.

교육 참여대상은 (예비)소상공인 및 (예비)협동조합을 비롯한 도민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찾아가는교육’은 시설립한 협동조합만 가능하다.

두 교육 모두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고, 교육 신청은 11월 말까지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www.sz.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교육 신청은 선착순 마감하며, 기타 사항은 경진원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063-711-2124~6)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3인 이상의 교육생이 있을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희망하는 장소로 교육 담당자가 찾아가서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참여대상은 (예비)소상공인 및 (예비)협동조합을 비롯한 도민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찾아가는교육’은 시설립한 협동조합만 가능하다.

두 교육 모두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고, 교육 신청은 11월 말까지 소상공인마당 홈페이지(www.sz.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교육 신청은 선착순 마감하며, 기타 사항은 경진원 소상공인협업아카데미(063-711-2124~6)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JB금융그룹, 열정 가득한 대학생 SNS홍보대사 모집

JB금융그룹(회장 김기홍)은 9월 16일부터 10월 7일까지 대학생 SNS홍보대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JB금융그룹 대학생 SNS홍보대사는 영상과 SNS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20여 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10월 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JB금융지주 홈페이지(www.jbfg.com)에서 지원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E-mail(kci@jbfg.com)로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홍보대사에게는 매월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하며, 활동 우수팀 및 개인에게는 총 1,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JB금융그룹의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갖는다.

최종 선발된 20여 명의 홍보대사는 11월 초 발대식을 시작으로 내년 4월까지 JB금융그룹의 브랜드를 SNS 및 영상 콘텐츠로 홍보하고, 다양한 대외 활동을 통해 ‘젊고 강한 JB금융그룹’의 서포터즈 역할을 수행한다.

JB금융그룹 관계자는 “대학생들만의 독창적이고 신선한 영상 콘텐츠로 JB금융그룹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기대한다”며 “끼와 열정이 가득한 대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존 레논의 어린 시절부터 유품까지 한자리에

LX 브랜드 데이, 선착순 무료 관람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최창학)가 공공기관 최초로 ‘브랜드 데이’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이매진 존 레논’展의 무료 입장 기회를 제공한다.

‘LX 브랜드 데이’는 LX가 문화예술 등의 분야를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인 ‘메세나(Mecenat)’ 일환으로, 전북을 대표하는 북학문화예술센터인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함께 시민들에게 전시회 티켓 나눔을 통해 LX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밴드 ‘비틀즈’의 리더 존 레논의 삶을 다룬 이번 전시는 불우했던 존 레논의 어린 시절부터 팝 음악사의 전설로 남은 비틀즈 멤버로서 시절, 비틀즈 해체 이후 요

요 요과 함께한 평화주의 혁명가로서의 면모를 방대한 자료를 통해 보여준다.

이번 전시는 서울에서 한 차례 대규모 전시 이후 전주에서 처음 열리는 지역 순회전으로 존 레논의 유품 및 작품, 컬러 소상품까지 총 300여 점이 전시되며, 비틀즈의 명곡을 버스킹 공연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전시는 이달 10일부터 22일까지 선착순 무료 관람으로 이뤄지며, 버스킹 공연은 21~22일까지 전시장 밖 야외무대에서 관람객들을 기다린다.

또한 LX 브랜드 데이 기간에 전시장 곳곳에 숨어 있는 LX 캐릭터 랜디와 함께 #LX브랜드데이 해시태그를 달아 인증샷을 올리면 LX 기념품을 주는 깜짝 이벤트도 준비했다.



최창학 사장은 “존 레논의 모든 삶의 궤적을 살필 수 있는 전북 최초의 전시회”라면서 “존 레논이 전한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입장 마감은 오후 5시이다. 추석 당일(13일)과 월요일은 휴관이다. 자세한 문의는 063)270-8000로 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북중기청,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 접수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신기술·제품개발 및 신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기술개발사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네트워크 기획지원을 완료한 과제 중 평가를 통해 시장성 등이 우수한 과제를 선정하여 2년간 6억원 이내의 기술개발자금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며, 기존 기술개발사

업과는 달리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사업계획서 및 상호협력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과제에 혁신형 중소기업이 개발, 생산, 사업화 각 단계의 주도적(보조적) 역할을 수행하는 중소기업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게 된다.

주관기관은 기술혁신형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공동개발기관은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거나 개발, 생산, 사업화 각 단계에서 주도적(보조적)으로 고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시스템(www.smtch.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042-388-0714) 또는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063-210-6442)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자동차서비스산업위원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구 갑)을 초청하여 ‘제3차 자동차서비스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자동차서비스업계 중소기업을 위한 주요현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고용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하도급납품단가조정 소분과위원장으로서 지난 8월 ‘자동차 인준부품 활성화 협약’ 체결 등 자동차산업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위원으로는 김동경 경기도자동차정비(조) 이사장(위원장)을 비롯하여 정비업, 부품판매업, 법폐수리업 등 자동차서비스산업 관련 중소기업단체 대표 11명이 참석했다.

이날 위원들은 자동차서비스업은 ‘완성차 제조업-자동차서비스업-보험업’으로 이어지는 자동차산업 가치사슬구조에서 중요한 중간다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산업이지만, 대부분 영세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어 전·후방 산업 대기업들과의 거래에서 불공정한 관행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많으며 아쉬움을 밝혔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보험사와의 상생방안 등을 담은 7개 건의과제를 고용진 의원에게 전달하고,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서비스산업에서도 혁신성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 구축을 위한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청했다.

김동경 중소기업중앙회 자동차서비스산업위원장은 “혁신성장을 위해 정비업계는 기술인력 양성, 민간자격 교육 강화 등 자체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먼저 자동차산업 전반에서 공정경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